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별 노인복지 비교연구

이 가 옥

1993. 11. 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연구실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별 노인복지 비교연구

이 가 옥

1993. 11. 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연구실

목 차

1. 시작하는 글

2. 인구학적 특성

- 1) 노인인구
- 2) 총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 3) 평균수명과 성비
- 4) 중위연령(median age)
- 5) 부양지수와 노령화지수

3. 노인복지정책 및 프로그램

- 1) 노후소득보장 프로그램
- 2) 노인복지서비스

4. 동거상황

5. 맺음글

부록: 1인당 국민소득

국가별 비교에 포함된 나라들은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필리핀, 태국, 인도임.
그러나 인구학적 비교에서 중국이 첨가되었고 동거상황에서는 인도가 빠짐.

1. 시작하는 글

우리나라와 비슷한 문화를 가진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의 노인복지정책 및 프로그램을 살펴 보는 것은, 서구 선진국의 노인복지현황과 프로그램을 연구하는 것보다 다음과 같은 점에서 우리에게 더 큰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우리와 비슷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나라들의 노인복지에 대한 정보가 국내에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정리·소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아·태지역에는 사회·경제적 수준 및 노인복지의 수준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는 국가들이 혼재해 있으므로(예: 일본과 인도), 이러한 주변국가들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현 위치에 대한 조명과 앞으로의 전망을 해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이러한 아·태지역 국가들의 노인복지에 대한 기초자료의 수집은, 나아가서는 아·태지역 국가들에 있어서의 상이한 노인복지정책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이 그 나라의 경제적 수준, 사회·문화·정치적 배경 등 다양한 요인 가운데서 과연 어떤 요인인지를 분석적으로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의 노인복지 관련 자료들을 수집 가능한한에서 비교·정리함으로써, 이를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국가들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서 선정되었다. 첫째, UN, ESCAP¹⁾ 사회개발국에서 1993-94년 연구과제로 추진중인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노인복지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국가별 연구」에 참여하는 국가(중국, 인도, 싱가포르, 태국)를 대상으로 하였다.²⁾ 둘째, 타이완과 필리핀을

1) UN, ESCAP: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2) 이 연구과제에 참여하게 된 국가는 최초에 4개국(중국, 인도, 싱가포르,

대상국가에 추가하였다. 이는 University of Michigan, Population Studies Center에서 주관한 「Comparative study of the elderly³⁾의³⁾ 일환으로 발간된 이들 국가의 연구보고서를 참고로 활용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세계, 위의 6개국에다 우리보다 경제발전 정도가 높고 이미 고령화사회인 일본을 추가하였다.

본 연구에 있어서 가장 큰 애로점은 외국 노인복지자료의 입수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었다. 연구대상국으로부터의 자료입수가 여의치 않았으며,⁴⁾ 각종 문헌을 통하여 얻은 외국자료가 단편적이어서 그 내용의 정확한 이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 각국의 인구학적 통계자료는 U.N.의 자료를⁵⁾ 주로 사용하였음.
- ESCAP의 「국가별 연구」에 참여한 각국의 연구책임자로부터 입수한 '제 2차 노인복지 연구책임자 회의'(1993년 8월, 중국 북경에서 개최됨)의 회의자료를 활용하였음.
- 연금제도에 관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각국 정부 발간책자와 국제회의에서 발표된 세미나 자료자료 등을⁶⁾ 참고하였으며, 또한 U.N.자료를⁷⁾ 활용하여 보충하였음.

태국)으로 계획되었으나, 1992년 9월 방콕에서 개최된 각국의 '제 1차 노인복지 연구책임자 회의'에서 우리나라도 이 연구에 참여할 것을 합의하였음.

- 3) 이 연구과제의 참여국은 대만,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의 4개국임.
- 4) ESCAP의 「국가별 연구」에 참여한 각국의 연구책임자들은 1993년 9월까지 상호 자국의 노인복지에 관한 연구보고서의 초고를 교환하기로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를 이행한 나라가 없었음.
- 5)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1990, 1991; The sex and age distribution of the world population, 1992 revision, 1993.
- 6) 예를 들면, Social insurance agency Japanese Government, Outline of social insurance in Japan 1989, 1990; C.A. Ju & P.P.L. Cheung, The elderly in Singapore(Singapore country report), Phase III Asean population project, socio-economic consequences of the aging of the population, 1988.
- 7) U.N., Social security throughout the world-1991, 1992.

- 노인의 생활실태에 관한 부분은, 위에서 언급한 Michigan 대학교의 연구보고서를 활용하였으며, D.R. Phillips (편저)의 책을⁸⁾ 보충자료로 사용하였음.

8) D.R. Phillips (ed.), Aging in East and South-East Asia, 1992.

2. 인구학적 특성⁹⁾

1) 노인인구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에서 노인인구의 절대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 인도의 순이며, 전체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 일본, 대만, 중국, 싱가포르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싱가포르와 한국이 중국을 앞지르게 되며, 노인인구의 비율이 일본, 대만, 싱가포르, 한국, 중국의 순서로 높게 나타나게 된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2000년 이후에는 4명중 한사람이 60세이상의 노인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9) 여기에서는 자료의 일관성을 위하여 U.N.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따라서 앞에 기술된 각국별 노인복지의 인구학적 특성의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가 있다. 대만의 관한 인구학적 통계자료는 U.N.의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Taiwan Provincial Institute of Family Planning의 내부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자료는 그 정확성을 위하여 본 보고서의 '제 1장, I. 인구학적 특성'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Table 1> Elderly population

(Unit: thousands)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Korea	60+	1,502	1,705	2,268	3,319	4,984	6,826	9,861
	65+	935	1,039	1,446	2,162	3,168	4,668	6,333
Japan		8,340	11,111	15,021	21,238	28,408	36,157	38,368
		5,397	7,371	10,560	14,495	20,728	26,227	31,145
Singapore		62	119	175	236	330	487	770
		34	70	115	154	216	302	506
Taiwan		438	710	1,183	1,948	2,666	3,431	5,372 ¹⁾
		262	418	743	1,231	1,875	2,400	3,545
China		47,515	56,785	73,644	101,154	132,064	169,113	241,817
		31,769	35,805	47,033	66,284	90,407	112,527	166,592
Philippines		1,337	1,612	2,183	3,088	4,290	6,067	9,482
		839	1,010	1,348	1,962	2,765	3,801	5,938
Thailand		1,188	1,715	2,527	3,421	4,887	6,647	10,014
		725	1,077	1,649	2,156	3,159	4,400	6,436
India		25,107	33,224	44,606	60,488	81,344	106,955	149,546
		15,183	20,277	27,897	38,403	53,510	71,668	98,743

Note: 1) Elderly population of Taiwan is a projection of 2021.

Source: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1990, 1991.

Taiwan Provincial Institute of Family Planning, unpublished paper.

ESCAP 지역 전망 60세 이상 - 노인인구

<Table 2> Elderly percentage

(Unit: %)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Korea	60+	6.0	5.4	6.1	7.6	10.7	13.7	19.5
	65+	3.7	3.3	3.9	5.0	6.8	9.4	12.5
Japan		8.9	10.6	12.9	17.2	21.8	27.2	29.3
		5.7	7.1	9.0	11.7	15.9	19.6	23.7
Singapore		3.7	5.7	7.2	8.7	11.0	15.4	23.4
		2.1	3.4	4.7	5.6	7.2	9.5	15.4
Taiwan		4.1	4.9	6.7	9.6	12.0	14.3	21.3 ¹⁾
		2.5	2.9	4.2	6.1	8.5	10.0	14.1
China		7.2	6.8	7.4	8.9	10.2	12.1	16.4
		4.8	4.3	4.7	5.8	7.0	8.1	11.3
Philippines		4.9	4.3	5.3	5.3	5.8	6.9	9.2
		3.0	2.7	3.4	3.4	3.7	4.4	5.8
Thailand		4.5	4.8	5.4	6.2	7.7	9.4	13.1
		2.7	3.0	3.5	3.9	5.0	6.2	8.4
India		5.7	6.0	6.5	7.1	7.8	8.7	10.9
		3.4	3.7	4.0	4.5	5.1	5.9	7.2

Note: 1) Elderly percentage of Taiwan is a projection of 2021.
Source: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1990, 1991*.
Taiwan Provincial Institute of Family Planning, unpublished paper.

2) 총출산율 (total fertility rate)

노인인구의 증가는 주로 출산율과 조기사망율의 감소에 의한 것으로, 특히 출산율은 사망율에 비해 인구의 노령화를 이끄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1960년에는 일본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보였으나, 1990년에는 한국과 싱가포르의 출산율이 1.6, 1.8로 각각 저하되고 있다. 같은 해 일본의 총출산율은 1.5로 세계에서 두번째로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과 태국은 계속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는 중이고, 필리핀과 인도는 아직도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하여 출산율과 관련하여서는 3개그룹, 즉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의 선두그룹, 중국과 태국의 중간그룹, 필리핀과 인도의 하위그룹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Table 3> Total fertility rate

(Unit: per woman)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Korea	6.0	4.5	2.7	1.6	1.6	1.6	1.6
Japan ¹⁾	2.0	2.1	1.8	1.5	1.8	1.8	1.8
Singapore	4.9	2.6	1.7	1.8	1.8	1.8	1.8
Taiwan	5.8	4.0	2.5	1.8	1.8	1.8	1.9
China	5.9	4.8	2.4	2.3	1.9	1.8	1.8
Philippines	6.6	5.3	4.7	3.9	3.1	2.5	2.1
Thailand	6.4	5.0	3.5	2.2	2.1	2.1	2.1
India	5.8	5.4	4.8	4.1	3.3	2.5	2.1

Note: 1) TFR of Japan data from 1960~1990 is cited from Japan Aging Research Center, *Aging in Japan*, 1992, p.19.

Source: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1990*, 1991.

Taiwan Provincial Institute of Family Planning, unpublished paper.

3) 평균수명과 성비

지난 30년간 가장 현격한 평균수명의 증가를 보인 나라는 중국으로, 1960년에 비해 1990년의 평균수명은 약 20년 연장되었다. 평균수명은 일본, 싱

가폴, 대만, 중국, 한국순으로 높고, 인도가 가장 낮은 평균수명을 보여준다. 특히 일본은 1990년 남자의 평균수명이 75.9세, 여자의 평균수명은 81.8세로 세계에서 평균수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 대만, 한국, 싱가포르의 경우 성별 평균수명의 차이가 5~6년이나 되는 반면 (1990년 기준), 인도는 거의 성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남자와 여자의 평균수명의 차이에서 노인인구의 성비를 쉽게 예측할 수 있겠는데, 성비 파괴현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1990년 우리나라의 65세이상 노인인구 중 ~~여자~~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62.5%로 나타나고 있다.

<Table 4> Life expectancy at birth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Korea	Both sexes	55.3	63.2	65.8	71.3	74.3	76.1	77.0
	Males	53.0	59.8	62.7	67.4	71.3	73.8	74.9
	Females	57.8	66.7	69.1	75.4	77.4	78.7	79.1
Japan		69.0	73.3	76.9	78.8	79.7	80.6	81.4
		66.5	70.6	74.2	75.9	76.8	77.8	78.6
		71.6	76.2	79.7	81.7	82.6	83.4	84.2
Singapore		65.8	69.5	71.8	74.5	76.2	77.7	78.8
		64.1	67.4	69.2	71.8	73.6	75.1	76.2
		67.6	71.8	74.6	77.4	79.0	80.4	81.5
Taiwan		62.2	66.2	69.6	71.1	73.7	76.0	76.0
		62.2	70.5	74.5	76.1	79.3	82.0	82.0
China		49.5	63.2	67.8	70.9	73.2	75.1	76.8
		48.7	62.5	66.7	69.2	71.4	73.3	74.9
		50.4	63.9	68.9	72.6	75.1	77.1	78.9
Philippines		54.5	57.9	61.9	65.0	68.1	70.5	72.7
		52.9	56.4	60.2	63.1	66.1	68.4	70.4
		56.2	59.4	63.7	67.0	70.2	72.6	75.1
Thailand		53.9	59.6	62.7	67.1	70.2	72.6	74.6
		51.9	57.7	60.7	65.1	68.0	70.3	72.3
		56.1	61.6	64.8	69.2	72.4	74.9	77.0
India		45.5	50.3	55.4	60.4	65.1	69.0	71.5
		46.2	51.2	55.6	60.1	64.4	67.6	69.6
		44.7	49.3	55.2	60.7	65.9	70.5	73.6

Note: 1) Life expectancy of both sexes of Taiwan is not available.
Source: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1990, 1991*.
Taiwan Provincial Institute of Family Planning, unpublished paper.

<Table 5> Sex ratio of elderly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Korea	60+	74.7	69.8	67.3	64.8	72.2	79.2	84.4
	65+	69.8	62.1	59.5	60.0	62.5	72.3	78.5
Japan		83.3	81.7	74.6	74.6	81.1	84.3	84.1
		76.7	78.3	73.4	67.3	76.6	80.1	81.3
Singapore		77.1	88.9	86.2	87.3	85.4	83.8	85.5
		70.0	79.5	79.7	81.2	81.5	77.6	79.4
Taiwan		81.1	92.3	109.3	123.0	107.4	95.5	90.3 ¹⁾
		71.5	82.5	98.7	115.1	110.3	93.8	87.6
China		85.7	81.1	85.0	91.3	94.8	94.8	93.1
		84.4	77.0	78.2	84.4	89.3	90.5	89.2
Philippines		72.5	93.1	92.2	89.7	88.9	89.4	90.3
		62.0	90.2	90.9	88.1	85.6	86.1	87.1
Thailand		86.5	83.4	82.7	81.1	79.0	80.2	81.4
		82.2	78.3	78.5	77.2	75.3	75.0	76.9
India		101.3	105.3	103.2	100.3	96.1	94.2	95.6
		100.5	104.1	102.6	99.1	95.3	91.3	91.8

Note: 1) Sex ratio of elderly of Taiwan is a projection of 2021.
Source: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1990, 1991*.
Taiwan Provincial Institute of Family Planning, unpublished paper.

4) 중위연령(median age)

중위연령은 총인구의 가운데 위치하는 나이로서 인구의 노령화 정도를 반영해주는 좋은 지표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1990년을 기준으로 일본, 싱가포르, 대만, 한국, 중국, 타이, 인도의 순서로 인구의 노령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필리핀이 19.7세로 가장 연소국가이다.

<Table 6> Median age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Korea	19.2	19.0	21.8	26.9	31.6	36.2	40.1
Japan	25.5	29.0	32.6	37.2	39.7	41.8	44.8
Singapore	18.8	19.7	24.5	29.7	34.6	38.5	40.8
Taiwan	17.7	19.2	22.9	27.3	31.7	35.5	39.6
China	21.8	19.7	22.1	25.7	29.8	34.2	36.7
Philippines	17.6	17.0	18.6	19.7	21.6	24.6	28.1
Thailand	17.9	16.8	19.4	22.9	27.1	30.8	34.3
India	20.4	19.9	20.6	21.8	23.2	25.5	28.9

Source: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1990, 1991*.
Taiwan Provincial Institute of Family Planning, unpublished paper.

5) 부양지수와 노령화지수

부양지수는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연소인구와 노인인구비율을 말한다. 모든 국가들이 연소인구 부양지수는 현격히 감소하는 반면, 노인부양지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2010년경에는 노령화지수가 113.5로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연소인구를 능가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Table 7> Dependency ratio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Korea	Total	79.8	83.3	60.5	44.2	38.8	39.9
	Child(0-14)	73.1	77.2	54.3	37.0	29.4	22.4
	Aged(65 ⁺)	6.7	6.1	6.2	7.2	9.4	17.5
Japan		56.1	45.1	48.4	43.2	48.8	58.4
		47.2	34.9	34.9	26.4	25.2	27.4
		9.0	10.3	13.4	16.8	23.6	31.1
Singapore		82.8	72.8	46.6	40.7	41.7	38.3
		79.0	67.0	39.7	32.7	31.5	25.1
		3.8	5.8	6.9	7.9	10.3	13.2
Taiwan ¹⁾		90.8	75.3	57.7	49.6	42.0	43.0
		86.1	70.3	51.1	40.5	30.1	29.1
		4.7	5.0	6.6	9.1	11.9	13.9
China		77.7	78.7	67.2	47.7	50.3	41.6
		69.1	71.0	59.3	39.2	39.9	30.1
		8.6	7.7	7.9	8.6	10.5	11.4
Philippines		91.0	92.9	83.3	77.0	66.3	55.0
		85.2	87.7	77.1	71.0	60.2	48.2
		5.8	5.2	6.2	6.0	6.1	6.8
Thailand		90.3	96.9	77.1	57.6	46.0	44.5
		85.0	91.0	70.9	51.4	38.7	35.6
		5.2	5.9	6.3	6.2	7.3	8.9
India		76.1	78.8	74.2	69.5	65.6	56.9
		70.0	72.3	67.2	61.8	57.1	47.7
		6.0	6.5	7.1	7.6	8.5	9.2

Note: 1) Dependency ratio of Taiwan is from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mpact on fertility decline on population policies and programme strategies*, 1992, p.84, 204.

Source: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1990, 1991*.

<Table 8> Aging index (65+)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Korea	9.2	7.8	11.4	19.4	31.9	49.1	78.2
Japan	19.1	29.5	38.4	63.6	93.7	113.5	155.2
Singapore	4.8	8.7	17.4	24.2	32.7	52.6	90.8
Taiwan	5.5	7.2	13.0	22.3	38.3	47.3	70.4
China	12.4	10.8	13.3	21.9	26.3	37.9	61.3
Philippines	6.8	5.9	8.0	8.5	10.1	14.1	22.1
Singapore	4.8	8.7	17.4	24.2	32.7	52.6	90.8
Thailand	6.1	6.5	8.9	12.1	18.9	25.0	37.6
India	8.6	9.0	10.6	12.3	14.9	19.3	28.6

Source: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1990, 1991*.
Taiwan Provincial Institute of Family Planning, unpublished
paper.

3. 노인복지정책 및 프로그램

1) 노후소득보장 프로그램

일본, 대만, 태국, 필리핀, 한국은 사회보장제도로써 사회보험을 채택하고 있으나, 급여방식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만, 태국, 필리핀은 일시불의 퇴직금 수혜의 성격이 강한 반면, 한국은 국민연금제도가 최근에 실시된 까닭으로 퇴직금과 연금제도의 공존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은 연금제도가 이미 정착되어 있다. 한편 싱가포르와 인도는 적립기금제도(provident fund system)¹⁰⁾를 채택하고 있다. 적립기금제도는 사회보험과 비교해 볼 때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같으나, 연금제도가 매월 일정액을 급여하는 방식인데 반해 적립기금제도는 일시불지급이라는 점에서 다르다(Myers, 1985, 157). 태국은 전국민 대상의 노령연금이 1996년에야 시작될 예정이며, 이미 연금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국가공무원은 연금을 일시불 형태의 퇴직금으로 받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퇴직연령과 연금지급연령을 60세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일본과 대만의 경우에는 연금종류에 따라 65세에 첫 노령연금을 받게 되어 있다. 일본과 대만의 경우 남자와 여자의 퇴직연령이 서로 다른데 일본은 여자의 퇴직연령이 57세로 남자보다 3년이 빠르고, 대만은 55세로 5년 빨리 퇴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적립기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싱가포르와 인도는 적립기금 수혜연령이 55세로 가장 이른다.

2) 노인복지서비스

일본과 싱가포르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노인복지서비스의 내용이 매우 미

10) 적립기금제도는 가족제도가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는 저개발국가에서 채택되는 경향이 많다(Myers, 1985, 157).

비하다. 여기에서는 노인복지서비스를 크게 시설복지와 재가복지서비스로 나누어서 다루기로 하겠다.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시설보호보다는 재가복지 서비스의 방향을 지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싱가포르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는 이러한 재가복지서비스가 구체적으로 프로그램화되어 있지 않다. 필리핀, 인도, 태국에서는 극히 적은 비율의 영세노인이 시설보호를 받고 있는 외에는 별반 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

<표 9> 노후소득보장 프로그램

	수혜조건	금여액		
		나이	근무연한	
한국	국민연금 특별고용직연금, 국민연금 시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60세 연령제한 없음	20년이상 20년이상	$2.4(AtB \times 0.75)(1+0.05n)^{12}$ 보수연액 $\times (1.5+0.02(n-20))^{22}$
일본	국민기초연금 피용자연금	65세 남 60세, 여 57세	25년근무시	$66.441 \times (\text{각출퇴직납부월수} + \text{면제월수}) \div 480$ $60-64: \text{정액부분}(a) + \text{소득비례부분}(b)$ $+ \text{부가연금}(c)$ $65+: (b) + (c)$
싱가폴	중앙적립기금제도 (central provident fund)	55세		월금의 40% ⁴⁾ + 이자
대만	정부가용이보험 노동조합제도	65세 남 60세, 여 55세	5년이상 1년이상 25년이상 근무시 연령과 상관없이 퇴직가능	$(1\text{개월월금} \times \text{근무연수}) + (2\text{개월월금} \times 15\text{년 이후월수})$
필리핀	공무원연금제도 사기업연금제도	60세	10년이상 근무	
태국	1996년 연금제도 실시 예정	60세		최종월급여액 \times 근무연수
인도	적립기금제도(provident fund)	55세		(월금의 16.6% 또는 20% ⁵⁾) + 이자

주: 1) 2.4: 가입기간 20년을 기준으로 급여수준이 전가입자 최종평균보수의 40%가 되게 하는 상수

- A(공등부분): 연금수급 전연도의 사업장가입자 전원의 평균보수(소득)월액
- B(소득비례부분):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표준보수(소득)월액의 평균액
- n: 20년초과 가입연수
- 2) n: 채적연수 ($20 \leq n \leq 33$)
- 3) a: 생년월일에 따른 단위금액 \times 보험납부월수 \times 소비지불가지수
- b: 표준월보수액의 평균액 \times 생년월일에 따른 비례상수 \times 소비지불가지수
- c: 부인과 두자녀(20세이하)는 각각 17, 425엔, 셋째자녀이상은 각각 5, 808엔
- 4) 고용인이 월금의 17.5%, 피고용인이 월금의 22.5%를 각각 부담함.
- 5)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월금의 8.3% 또는 10%씩 각각 부담함.

<표 10> 노인복지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노인복지시설대책
한 국	1) 가정봉사원파견사업 2) 주간보호사업 3) 단기보호사업 4) 노인종합복지관 5) 노인정 6) 경로우대제 7) 경로식당	1) 무료요양원, 양로원 2) 실비요양원, 양로원 3) 유료요양원, 양로원 1992년 121개소, 7,204명 입소 (총노인인구의 0.3%) <i>65세 이상 입소</i>
일 본	1) 가정봉사원파견사업 2) 가정방문간호제도 3) 주간보호사업 4) 단기보호사업 5) 노인복지센터(A, B, C형) 6) 노인정(憩의家) 7) 노인클럽 8) 급식서비스	1) 특별양호노인홈 2) 양호노인홈 3) 경비노인홈(A, B형) 4) 유료노인홈 1990년 3,678개소 254,301명 입소 ¹⁾ (총노인인구의 1.7%)
싱가폴	1) 우호방문사업 2) 가정봉사원제도 3) 가정방문간호제도 4) 주간보호사업 5) 단기보호사업 6) 노인클럽 7) 급식서비스	1) 정부운영양로원, 민간양로원 2) 민간요양원, 유료양로원 1989년 70개소(5,040beds), 4,178명 입소 (총노인인구의 2%)
대 만	1) 노인클럽 2) 공공시설 무료이용 (70세이상)	1) 퇴역군인을 위한 양로원 2) 무료양로원 3) 유료양로원 1982년 총 10,000여개소 (총노인인구의 1%)
필리핀	미확인	양로시설 1990년 총 21개소, 1,000여명 입소 (총노인인구의 0.03%)
태 국	주간보호사업	무료양로원 1989년 12개소, 2,150명 입소 (총노인인구의 0.06%)
인 도	양로시설 및 주간보호서비스를 위해 1983년 민간조직에 재정지원을 시작함	

주: 1) 유료노인홈의 1991년 입소인원(173개소, 17,420명)이 포함되어 있음.

4. 동거상황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태국, 필리핀의 모든 나라에서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조사년도가 각 나라마다 일치하지는 않지만, ^{31세}태국의 노인들이 가장 높은 ^{82.2%}자녀동거율을 보이고 있고, 일본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동양사회의 전통적 가족중시 가치관으로 인해 서양과 비교해 볼 때는 높은 자녀동거율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본과 대만에서 볼 수 있듯이,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전통적인 자녀동거가구는 감소하고 노인독신가구와 노부부만의 가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이한 점으로 태국의 경우 친척과의 동거율이 11%로 상당히 높는데, 이는 노인들이 경제력이 있는 젊은 조카, 손자, 손녀를 총칭하는 '란(laan)'과 동거하는 현상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란(laan)'동거는 자녀가 없는 노인이라도 가까운 친척들에 의하여 부양받게 되는 태국 특유의 융통성 있고 실용적인 가족제도로 볼 수 있겠다.

<표 11> 노인의 동거상황

(단위: %)

국 가	조사 년도	독신 가구	부부 가구	자녀동 거가구	친척동 거가구	기타
한 국 ¹⁾	1987	9.6 7.6	13.3 17.0	71.7 70.1	5.2 5.1	0.3 0.2
일 본	1980	8.5	19.6	69.0	2.8	0.2
중 국	1989	11.2	25.5	60.0 82.2%	3.1	0.2
싱가폴	1983	5.4	4.9	81.4		8.4 ²⁾
대 만 ³⁾	1976	8.8		83.7		7.5
	1980	12.8		81.6		5.6
	1986	22.8		70.7		6.6
필리핀	1988	4.0	10.0	68.0		11.0
태 국	1986	4.0	7.0	77.0		11.0 ⁴⁾

주: 1) 이가옥 외, 노인가구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1989, p.47.

2) 배우자와 자녀 이외의 사람과의 동거를 의미함

3) 노인독신가구와 부부가구의 구분이 없으며, 친척동거 및 기타 동거 형태도 한 범주로 다루고 있음

4) 태국의 란(laan)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젊은 조카, 손자, 손녀가 포함됨

5. 맺음말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에서는, 국가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산업화·도시화로 특징지을 수 있는 그 간의 사회변화가 가족의 구조적·기능적 변화를 수반하게 되었으며, 노인의 부양문제가 더 이상 전통적인 가족의 규범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아시아권의 나라들에 있어서는 여전히 노인의 자녀동거율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가족제도의 전통적인 역할과 기능이 상당히 축소되었다는 하지만, 그래도 가족은 여전히 노인부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아시아권에서 가장 고령화현상이 높은 일본은 전국민을 위한 연금제도가 정착화되어 있으며,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가 개발되어 있다. 일본도 1970년 전반까지만 하더라도 요보호노인을 대상으로 시설보호 중심의 노인복지를 발전시켜 왔었다. 그러나 1970년 전후부터 서구사회에서 제기된 탈시설화운동과 자국의 시설보호정책에 대한 경제적 효율성 및 복지적 효과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1970년 중반부터 개개인의 사회적 통합(social integration)과 정상화(normalization)를 그 궁극적 목표로 하는 지역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서 재가복지서비스에 주력하고 있다.

싱가폴 노인복지정책의 특징은 가족에 의한 노인부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족의 부양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물질적·비물질적 혜택제공을 통하여 가족의 기능을 지원·보완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외국의 예가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에 시사하는 바는, 노인의 기본적 경제적 욕구는 국가가 책임을 지되, 그 외의 노인의 욕구는 우선적으로 가족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가족의 기능강화를 위한 제반

정책적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제도가 해결할 수 없는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가족이 보다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족의 노부모부양은 아시아권 나라의 전통적 국민정서와도 합일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노인복지정책은 가족의 기능강화와 노인의 가족내 통합을 목표로 하는 가족정책내에서 노인의 복지욕구를 대응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현대사회에서의 약화된 가족기능을 보완해 줄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의 개발과 이를 위한 제반 전제조건 정비의 필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가족부양기능의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기 위하여는 가족의 현재적·잠재적 부양기능을 지원·보완·대체할 수 있는 다각적인 시책 및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하겠다. 예를 들면, 노부모봉양수당제도의 확대적용, 가정봉사원제도 및 가정방문간호제도의 정착화, 주간보호소 및 단기보호소의 확대 등의 구체적 시책이 실시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또한 노인복지정책은 노부모동거가족만을 위한 가족부양만을 획일적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노인의 다양한 거주형태에 따른 다양한 부양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면,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가족별거 노인을 위한 임대주택 및 노인집단주택의 개발이 요구되며, 인접별거(隣接別居) 및 근거(根據)의 거주형태 개발이 요청된다.

<Table A-1> Gross national product per capita, at current price, 1975, 1980, 1985, 1990, 1991

Country of area	1975	1980	1985	1990	1991
Korea	580	1,620	2,340	5,450	6,340
Japan	4,520	9,840	11,430	25,840	26,920
Singapore	2,540	4,550	7,170	11,200	12,890
Taiwan	-	-	-	7,997 ¹⁾	-
China	180	300	330	370	370
Philippines	340	650	540	730	740
Thailand	360	670	800	1,420	1,580
India	160	240	290	360	330

Note: 1) Data of Taiwan comes from Univ. of Michigan, Population Studies Center.

Source: World Bank, World tables update 1992 (recited from U.N., ESCAP, Compendium of social development indicators in the ESCAP region, 1993, p.136).